

# 이재명 '정치교체' 프레임, 중도·부동층 표심 흔들까

### '정치개혁·통합정부' 드라이브 민주당 입법 속도전 뒷받침 김동연과 단일화 막판 호재 기대

20대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치개혁·통합정부' 이 부동산 중 심을 뒤흔들 것인지 주목된다.

전체적인 판세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 민의힘 후보의 접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정치개혁· 통합정부'는 기존의 네거티브 구도에 비해 확장성 이 크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이날 이재명 후 보의 통합정부에 공감을 표하며 후보 사퇴와 함 께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선거 막판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 선 후보의 '정치개혁·통합정부'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위 '정치교체론'으로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정권교체론'을 둘러싸우며 막판 중도 성 향 부동층 표심을 대거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들은 이날 대선에 앞서 '원포인트 분회'를 열어 정 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구체적 입법안으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위성정당 금지법 ▲인수위 기간 당선자와 국회의 협치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3월 6일 이전 각 정당이 참여하 는 '정치개혁 연석회의' 개최 카드도 내밀었다. 더 나아가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일 대일 담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입법 속도전에 나

선 것은 정치개혁 진정성을 입증하는 한편 제3지대 세력들과의 이른바 '담론 연대'를 꾸려 국민의힘 운 석열 후보를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새로운 물결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막판 대선 지형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힘을 모아 정치개혁을 이루고 통 합 정부를 만들자는 주장은 '혁신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막판 부동층 민심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도 이날 기자회견담 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한 마리 나비의 날 깃짓이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며 "다른 후보 들도 '국민통합 연합정부'에 대한 화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물리적 방식의 단일화는 어렵다

라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정책연대 가능성도 끝까지 열어놓겠다는 방침이다. 다당제 정치개혁 구상을 고리로 안 후보와 소위 '심리적 연대'를 부 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권 후보 단일화 '불발'에 상심한 안 후보 지지층 일부를 끌어오려는 포석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의 정치개 혁·통합정부에 대해 급조된 '정치 쇼'라고 강력 비 판하고 있다. 또 이재명-김동연 후보의 단일화에 대 해서도 평가절하하면서 오히려 보수 표심의 결집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안철 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은근히 신경 쓰이는 눈치다.

전날 유세에서 '정권교체가 정치교체'라는 점을 강조했던 윤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는 사전투표 참 여 호소에만 전력을 쏟았다. 국민의힘에선 정권교

체를 희망하는 지지층을 향해 '실질적인 야권 단일 후보'는 윤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일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안철수 후보 사표론'을 확산시 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론의 '빅 텐트' 이슈 에 밀려들지 않겠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김동연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대선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거 구도에 있어서 계속 열세가 지속되니까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도 "원래 김 후보는 그쪽하고 예정이 된 후보 아니 겠나"라고 잘라 말했으며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재명 후보는 심지어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게도 연대 제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접담연합은 국 민이 바라는 통합정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직격탄 을 날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미래 에너지 개발 연구역량 키워 인류 공영에 이바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 가보니 학사·석사·박사 등 157명 입학 “나주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에너지 글로벌 톱 10 비전 선포도



2일 오전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신입생들이 학생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혜민 기자 choi@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생으로서 학문과 인격 도야에 정진함으로써 인류 공영을 위한 미래 에너 지 개발에 도전하는 탁월한 연구역량과 기업가 정 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할 것을 선서합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켄텍·KENTECH) '22학번' 박수빈(20·광주과학 고 졸업)씨는 2일 오전 열린 '제1회 입학식'에서 학생 대표로 나서 이 같은 선서문을 읽었다.

“선서문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박 씨는 올 한 해 동안 수소 액화 전문가인 황지현 지 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수소에너지 관련 창업의 기 회를 노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에너지 먹거리를 세우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이끌 한국에너지공대가 이날 처음 신입생을 받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 제'에 설립안이 채택된 이후 5년 만이다. 대선 공약 으로 채택돼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된 사례로 꼽힌 다. 대학을 상징하는 푸른색 점퍼를 입은 신입생들 은 상기된 표정으로 가족들과 기념 사진을 찍으며 캠퍼스에서의 하루를 시작했다.

첫해는 학사 108명, 석사 18명, 박사 6명, 석·박사 통합과정 25명 등 총 157명의 신입생을 맞이한다. 신입생 김태형(전남과학고 졸업)씨는 학우 10명 과 한 조를 이뤄 3명의 지도교수와 환경과 기후변 화, 수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김씨는 “교수가 5분 이상 발언하면 경고등이 울 리는 ‘미네르바’ 토론 교육이 흥미롭다”며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RC 교육을 충분히 활용해 평소 해보고 싶었던 뮤지컬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싶다”

고 말했다.

전민규(전북과학고 졸업)씨의 어머니 김미선 (45)씨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한국에너지공대 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어린 시절부터 에너지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의 꿈이 켄텍 캠퍼 스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의준 초대 총장은 이날 에너지 특화 강조형 대 학교로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에 들겠다는 '2050년 에너지분야 글로벌 톱 10 공과대학' 비전 을 선포했다.

비전에는 전문가 1000명과 에너지 유니콘 기업 5개를 배출하고 연 1000억원의 기술료 수익을 거

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내년에 공공기관 이전 10년차를 맞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반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창업으로 연계해 나주를 한국의 '에너지 실리콘 밸리'로 성장시키겠다는 계 획이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대가 갈 길은 멀다.

대학 설립-운영에는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약 1500억원이 투자됐다. 설 립까지는 한국전력과 그룹사가 투자금을 부담했고, 개교 이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개교를 닦새 앞두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핵심

시설을 둘러싼 사방은 여전히 공사중이다. 교사(校 舍)는 오는 2025년까지 옛 부영CC 부지 40만㎡에 1~3단계, 중장기 총 4단계로 순차적으로 조성된 다. 이날 찾은 개교 핵심시설에 마련된 도서관은 최 대 수용인원이 60명 정도로, 전체 학부생 100여 명 이 모두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입생들은 한 해 동안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부영리조트 기 숙사(2인 1실)를 쓴다. 내년부터는 새로 건축되는 방문자숙소를 기숙시설로 우선 사용하게 되며, 2025년부터는 연면적 2만991㎡(지하 1층·지상 5 층) 규모 RC 기숙사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여야대선후보 4인 사회분야 TV토론 사전투표 전 마지막 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4 인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는 세 번째 TV토론에서 격돌했다.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마지 막으로 열리는 TV토론인 만큼 중도층과 부동층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여의도 KBS 본관 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 주제는 사회분 야였다. 사회적 공명질문인 복지 정책과 재원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여성 정책과 검찰-정치개혁안 등도 논의됐다.

후보들은 이날 마지막 TV토론이 안갯속 대환 전 양상이 전개되는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토론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 새였다.

특히 이번 대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여성정책 등을 놓고 쟁점 이슈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TV토론은 지난달 27일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좌초된 후 두 후보 가 처음 얼굴을 맞댔다.

야권 단일화 논란과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국민 통합 정치개혁안'을 놓고도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 등이 논쟁을 벌였다. 나아가 사회 분야 전반을 주제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하면서 후보 간 정책 연대 움직임도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http://www.greenfuneral.kr/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선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 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I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최대 350명 장공 등 VIP전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및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어터 정회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 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062-385-0515 아이티여행사:062-382-8866